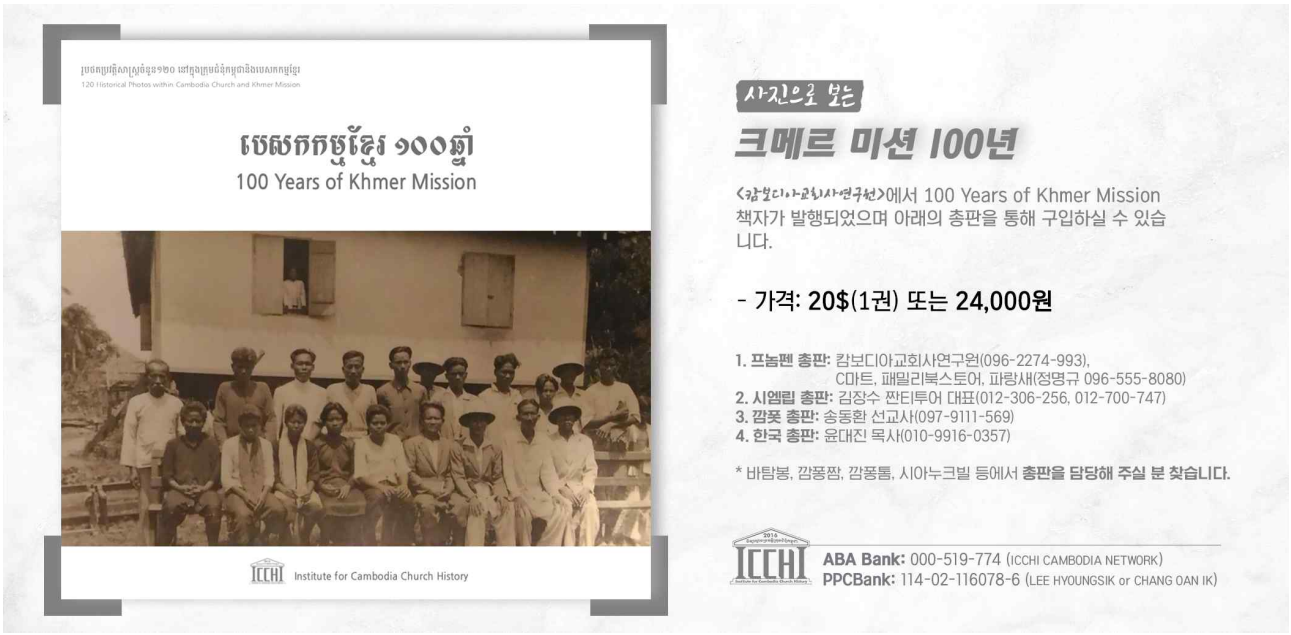
8월 기도제목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님께,
하루하루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이미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래 내용으로 〈2020년 8월 기도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이치 사역의 어제〉
캄보디아에는 1923년 1월 말, 첫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하였으며,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ICCHI, 이치)은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 역사를 잘 아는,
그러면서 역사 의식과 주인 의식이 투철한 캄보디아인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자
저희 부부의 기도로 지난 2016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세워졌습니다.

〈이치 사역의 오늘〉
이치는 지난 4년 반 동안, 전시관 2층을 건축하였고 그 안에 12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였으며,
이 곳에 1,000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캄보디아 교회 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물과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에는 "100 Years of Khmer Mission" 책을 출판하였으며(사진 1),



이 책의 봉헌예배, C&MA로부터 하몬드 성경 증정, 신임 이사/운영위원 위촉을 7월 9일에 했습니다(사진 2).



〈이치 사역의 내일〉
내년에는 부족한 연구실, 사무실, 방송실, 강의실, 도서실과 합숙 훈련을 위한 숙소가 포함된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을 현 이치 전시관 옆에 신축하고자 하며(3년 전, 부지 구입 완료),
이를 위해, 먼저 금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서울비전교회(신현수 담임목사)에서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유지재단" 설립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 헌신하는 이들이 모여
2년 반 뒤의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에 주님과 캄보디아 교회에 드릴 귀한 선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도제목〉
1. 이치가 수천년 동안 영적 어두움 속에 갖혀 있는 크메르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2. 이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기도 후원하는 동역자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100명*만원/월 목표).
3. 이치 사역을 신실하게 이끌어갈 이사장(현재 공석), 유지재단 이사장(현재 공석)을 보내주시옵소서.
4. 이치에서 지난 3년 사역한 락스메이 자매의 한국 유학과 새로운 일군의 신실한 동역을 위해.
5. 이치 이사 윤해미 선교사, 정순영 선교사와 저희 부부가 주님과 캄보디아 역사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섬기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부르는 이가 매우 적은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하는 장완익/변옥선 선교사 드림

www.icchi.org
President of Institute for Cambodia Church History
Tel (from Overseas) 855-9274-6034, (in Cambodia) 092-746-034
(free network by 070) 070-4038-6034(Home)~5(Office)